제 목 : 축구공만한 야구공으로 날린 홈런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어느 야구선수가 인터뷰에서 3루 홈런을 치던 날,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크게 보이고 속도마저 느리게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제게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대한 흥미와 꿈을 갖고 자랐습니다. 전남 구례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소규모 무지개학교로 졸업하고 그 후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술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예술대학 입시준비를 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거친 후 노력한 끝에 오래 전부터 그렇게 원했던 예술대학교 현대미술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설레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1년 반 정도 이어갔지만 세상은 제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며 고향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게 되었고 타지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막막해져 갔습니다. 결국 꿈은 잠시 뒤로 미뤄두게 되었고 먹고 사는 일이 급해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대학교 중퇴라는 내세울 것이 없는 저는 일을 하게 해준다는 아르바이트는 닥치는 대로 하면서 매일 매일을 하루 벌어 하루 살며 근근이 버티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강에도 적신호가 와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병원비의 지출이 커져 갔고 꿈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아둔 돈을 밑천삼아 공무원 시험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에 몰두해도 어려운 시험이었건만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고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던 즈음에 고향 집에서는 할머님이 크게 아프셨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에 가족 모두가 허덕이고 있는데 도저히 공부를 지속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와 오랜 아르바이트 생활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제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병세가 점점 심해져 병원에도 다니게 됐습니다. 우울증 증세 중 하나로 불면증까지 와서 하루 2시간 밖에 수면을 취할 수 없는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니 더욱 밤잠을 설쳤고, 지금까지 꿈을 위해 들여온 시간과 노력 등 모든 게 허사가 되는 느낌이 드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몹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이 떠올랐고 더 이상의 심려와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다잡으며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로 쉽게 기회가 오던 페스트푸드 점들도 문을 닫거나 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퇴사시키는 마당에 경력도 스펙도 없는 제가 취업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새일센터라는 곳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며 참가를 권유하는 홍보 문자가 왔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제가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웹&편집디자인 실무자과정' 이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 글씨가 점점 커다랗게 확대되어 제게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야구선수의 홈런 볼처럼. 제게는 다시없을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새일센터에 당장 연락을 드렸습니다. 담당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과정과 많은 정부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세한 교육 정보와 교육을 마친 이후의 취업알선 연계 등,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에 더욱 신뢰감을 갖게 되었기에 교육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몇 달 지탱할 여유도 없었지만 행운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당장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봐야 했는데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면접이 정말 어색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합격하여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전 '경력이음사례관리서비스'에도 참여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없는 형편에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했던 저는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심리상담은 물론 필요 시 약물 치료비도 제공된다는 유익한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육을 시작할 무렵부터는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에 상담선생님이 알려주신 기관은 방문하지 않았지만 특히 청년층을 위한 유용한 지원제도와 기관들이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당장 이용하지 않아도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직업교육훈련 참가에 앞서 '진로집단상담'이라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제 성격유형 검사와 직업흥미 검사를 통해 원하던 직종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니 안심이 되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됨은 물론 저의 희망직종에 대한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정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원하는 직종이나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무슨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웹&편집디자인의 본 교육을 받으며 진로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타이포그래픽 등 모든 게 재미있고 즐거웠으며 매일 무더위에 배재대학교 언덕을 오르내려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말로만 들었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교육 강사님의 지도와 도움으로 마침내 완성할 수도 있어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수업을 들으며 몇 달 뒤의 취업을 꿈꾸던 중 갑자기 아버지의 폐에 종양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잘 해보려던 때였는데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교육을 결석하며 아버지 간병을 위해 고향을 오가는 너무 힘든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업 참석을 위해 나가는 시간마저 줄여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고 아버지가 빠진 농사는 일손이 부족해져 자칫 엉망이 될 수 있어 대전에서 본가를 오가며 농사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병원에는 일손을 놓을 수 있는 가족이 없으니 편찮으신 아버지가 홀로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길어지자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지속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어 너무나 아쉽지만 직업교육훈련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직업교육훈련 담당선생님께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달 정도만 더 버티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면서 돈을 벌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면서 조기 취업을 목표로 함께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말씀 하셨고, 저는 당장의 취업이 너무 절실했지만 혼자는 힘들었기에 그때부터 선생님과 열심히 매일 매일 회사를 찾아보고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담당선생님은 매일 워크넷이나 취업사이트에 올라오는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제가 오래 일할 수 있고 조건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를 접촉해서 계속 정보를 주셨습니다. 업체에서 지원서를 내보라고 말했기에 지원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는 할 수 있다면서 같이 힘을 내 주셨기에 버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넣는 서류가 달랐습니다. 열심히 만든 포트폴리오를 매번 수정해야 했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업체에 맞춰 지속적으로 클리닉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포토샵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추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생겼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한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가 왔고 면접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떨리는 속내를 들키지 않으며 면접을 잘 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좋은 인상을 받으셨는지 마음에 들고 좋다고 하셨는데, 다만 제가 다시 디자인진흥원의 청년디자인지원사업에 지원서를 신청하여 통과 되어야만 함께 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 양식과 필요한 제출 서류를 별도로 열심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클리닉 해주시던 상담선생님께 급하게 지원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상의 드리니 선생님은 서울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도움을 주셨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회사 쪽의 문제로 지원업체에 선정 되지 못하였고, 그렇게 취업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면접 후 그렇게 탈락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없더라도 좌절하고 주저앉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구직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얼마 후에 그때 면접 봤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일을 하겠냐고 묻기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빚의 속도로 답했지만 다음날 갑자기 다시 뽑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일이 반복되자 다시 우울해졌고 행운이라는 것도 저는 일부러 피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나마 함께 교육을 받는 동기생들과 선생님들이 ‘액땜한 거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라며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지원서를 넣는 일을 반복하던 중 기대하지 않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서를 넣은 지 일주일도 넘었기에 이번에도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틀렸나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다치셔서 지원 서류를 늦게 보셨다면서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사장님께서는 다른 사람 면접은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며 본인이 퇴원 할 때쯤 출근 하는 걸로 하자고 약속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대표님이 메일로 과제를 주셔서 완수해 보이며 실력을 입증해 보여드렸습니다. 또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게 출근 전까지는 직업교육훈련에 계속 참석하며 공

부를 이어갔고, 마침내 8월 8일 웹디자이너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새일센터 인턴십에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임에도 3년 이상의 경력자에게나 해당되는 월 250만원이라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표님은 출퇴근 시간도 유연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6번의 지원 끝에 날린 홈런!

제 머리 속에 펄럭이는 현수막 제목입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 세상의 온갖 좋은 격려와 희망의 말들이 마치 제 얘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안되면 될 때까지, 아는 것이 힘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꿈은 이루어진다 등.

간절했기에 새일센터의 홍보 문자가 눈에 뜨였고, 연락을 드렸기에 인연으로 이어졌으며, 선생님들의 주야를 가리지 않는 진정성 있는 도움으로 홈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선생님은 움직이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업을 꿈꾸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당장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서서 새일센터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투병생활로 저는 여전히 대전과 본가를 오르내려야 하고 농사일도 거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울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간병도, 농사일도 좋은 에너지와 용기로 얼마든지 잘 해낼 자신이 생겼고, 무엇보다 제 뒤에 있는 새일센터라는 든든한 언덕을 생각하면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알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일센터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